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4 따뜻한 손으로 잡은 기워인생

이용사 김 영 옥

직업은 이발사지만 비단 머리만 손질하는 것을 주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가는 세상속에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잠일꾼.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으며 묵묵하게 자기일을 해나가는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보자.



찾아가는 길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8
- 대중교통
부천역 ⇨ 8번, 588-1번 버스 ⇨ 고강사거리
- 자가운전
경인고속도로(부천C) ⇨ 오정대로 ⇨ 원종로
- 약도



각박한 세상의 손질사

동네 모퉁이에 이르러 쉼새없이 돌아가는 청색, 홍색, 백색의 등근 조명. 그 조명아래 이발소안에서 들려오는 훈훈한 이야기들. 큰 거울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점점 흐릿한 미소가 피어나는 얼굴들을 만날 수가 있다. 조금씩 멋이 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위를 잡고있는 손은 더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그의 손은 가위를 잡고 머리를 다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이발소의 조명을 예전처럼 찾아보기 힘들지만, 추억의 시절, 아이들과 아저씨들의 멋을 지켜내 주었던 그 시절 이발문화를 지켜 나가겠노라며 오늘도 분주하게 가위를 움직여본다.

그의 가위는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고,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젊은 시절 부터 함께 고생했던 그의 가위가 아직도 사람의 체취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건 바로 가위하나로 세상을 손질하는 김영욱(44)씨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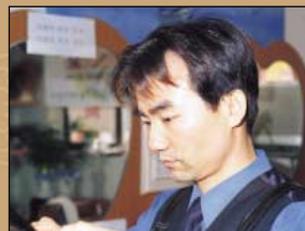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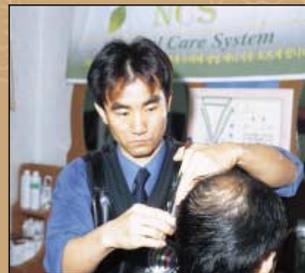
경원대 총장배 전국 이·미용예술컨테스트 이용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연합회 이용경기대회 종합대상 수상, 기능올림픽 은메달 수상... 화려한 수상 경력은 그를 알기에는 오히려 부족하고 거추장스러운 표현일 것이다. 그는 진정한 이용부문의 장인으로서 세상을 손질하고 다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인생관은 그에게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사 후진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보급에 남다른 정열을 쏟고 자신의 노하우를 홍보하는 등 자신의 삶을 남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들이 많으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겸손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것일까? 그가 가는 곳이면 항상 행복함이 함께 한다. 이제는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불우이웃돕기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무료 이발을 실시하는 것이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경기 으뜸이로 선정된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한다.

항상 청결한 그의 백색가운은 그의 평상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듯 싶다. 사람을 맞이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고 말하는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가 경영하는 삼성이용원만이 그의 활동공간은 아니다.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달려가는 그에겐 오히려 못찾아가는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다.

더불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노력파이기도 하다. 성실함과 근면성까지 다 갖추었지만 아직도 이용기술과 이웃사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어나고 있다. 이것이 그가 평생 해야 할 일이기 에 그는 지금 이시간에도 활동적인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말았다. 남자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지만 김영욱씨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겨를 없이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쁜 고민들을 해결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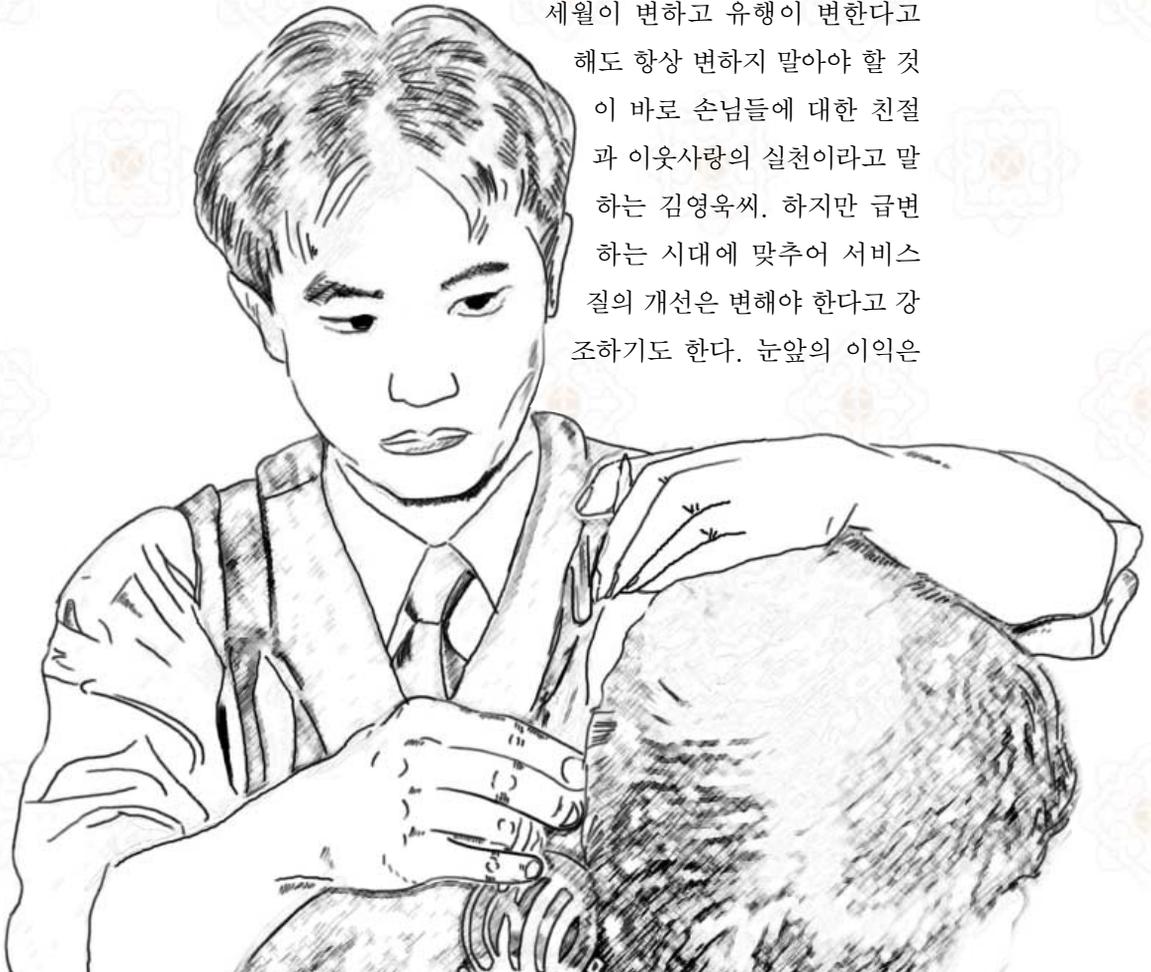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머리를 손질하는 일은 외형을 가꾸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는 외형만을 가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멋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의 가위는 사랑을 가꾸어 준다. 그것이 진정한 멋이라 알고 또 지금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선배이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C.A.T 세계이·미용대회’ 한국대표로 참가해서 단체전 입상을 하고 난 후에도 세계 기능사들과 겨루며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도 아끼지 않았다. 후배들은 그에게서 배우는 이용기술은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나같이 말한다. 진정으로 그에게 배우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랑이다.

세월이 변하고 유행이 변한다고 해도 항상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손님들에 대한 친절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김영욱씨.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서비스 질의 개선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눈앞의 이익은



당장에 득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지역 사회 발전은 꺾힐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요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무료이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그의 이용원이 있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에서 그가 유명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주변에서 김영욱씨는 뛰어난 실력가 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위 손으로 유명하다.

사랑으로 세상을 손질하는 이발사

편안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 근심과 걱정을 나누고, 기쁨은 배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김영욱씨가 있는 삼성이용원이다. 비록 걸모습은 다른 이발관들과 다를바가 없지만 크지 않은 그곳을 들어가면 많은 것을 수 있다. 이제는 손님이 들어오는 것만 봐도 그사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김영욱씨.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먼저 스타일을 제안해 본다. 서로가 흡족한 표정으로 만족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문을 나가는 손님을 볼때가 가장 흐뭇하고, 이발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면 이제는 미용실에 밀려 이발소가 적어지는 추세지만 이발소로 다시 사람들이 모일 그날을 위해 오늘도 그는 활기 차게 가위를 움직여 본다.